

2014년 한국금융학회 동계(I) 정책심포지엄

**한국 은행산업의 도전:
수익성 제고와 비이자이익의 활성화**

2014년 12월 11일

윤석헌(숭실대), 박래수(숙명여대), 김 범(숭실대)

목 차

- I. 서 론
- II. 문헌연구
- III. 글로벌 은행산업: 동향과 분석
- IV. 국내 은행산업: 동향과 분석
- V. 경영전략의 모색
- VI. 정책적 시사점
- VII. 결 론

I. 서론

-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2005년 이후 은행권 수익성(NIM 등) 하락 추세 지속
 - ROA와 ROE 등이 글로벌 최저 수준
 - NIM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비이자이익의 기여도 낮음
- 한편 해외에서는 다수 은행들이 다양한 전략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성장세 시현
 - 상업은행: Wells Fargo, Mizuho, HSBC, Bank of China, Toronto Dominion Bank 등
 - 투자은행: Santander, Deutsche Bank, JPMorgan Chase 등
-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수익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 한편으로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여 금융중개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
 - 또 한편으로는 은행의 잠재적 부실화에 따른 고위험·고수익 추구를 사전 예방하여 잠재적 위기 가능성 및 공적자금 부담을 경감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

- 첫째, 근래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및 비이자이익 비중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해외 은행들과 비교
- 둘째,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 및 비이자이익 업무 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은행의 중개기능 수행과의 연관성 분석
- 셋째, 국내 은행들에 대한 전략방향 제시 및 정책적 시사점 모색

국내은행 수익성 이슈: 새로운 이해

□ [전통적중개이익]: 예대이자이익+수수료이익-대손충당금

- 이자이익 중 예대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이익은 만기불일치라는 은행의 전통적 중개기능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

□ [기타중개이익]: 기타이자이익+트레이딩이익+기타비이자이익

- 이자이익 중 기타이자이익 부분과 비이자이익 중 트레이딩이익 및 기타비이자이익은 수익창출 등 은행의 중개활동을 포괄적 내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

□ 수익성 제고의 핵심은 전통적 중개이익의 확충

* 이를 위해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전문성(전문인력) 확보가 중요

몇 가지 정의와 가설

□ 정의

- [전통적중개이익]=예대이자이익+수수료이익-대손충당금
- [기타중개이익]=기타이자이익+트레이딩이익+기타비이자이익

□ 몇 가지 가설

- [1] 중개기능가설: 은행의 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과 보완관계 내지 정(+)의 관계
- [2] 대출과 [전통적중개이익] 간에 정(+)의 관계
- [3] 예금과 [전통적중개이익] 간에 정(+)의 관계
- [4] [전통적중개이익]과 [기타중개이익] 간에는 영(0)의 관계
- [5] CoV의 역수 기준으로 [전통적중개이익]>[기타중개이익]이 성립
- [6] (기업대출/가계대출)과 전통적 중개이익 간 정(+)의 관계

- 본 연구는 국내외 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은행간 비교함으로써 국내은행 경영전략 방향 제시

II. 문헌연구

1. 해외문헌: 시대별 변천
2. 해외문헌: 지역은행, 금융지주회사
3. 국내문헌

1. 해외문헌: 수익성 관점의 변천(1/2)

□ 전통적 지혜(Conventional Wisdom) : GLB법 이전

- 전통적으로 다수 연구들은 (미국)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가 위험분산효과에 힘입어 은행의 전체위험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 Heggstad(1972), Wall and Eisenbeis(1984), Kwast(1984), Litan(1985), Brewer(1989), Saunders and Waters(1994)
 - * 은행의 NIM이 경제활동 주기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비이자이익은 이자이익 보다 안정적
 - * 따라서 비이자이익으로의 업무 다변화는 분산효과를 통해 은행 전체위험을 감소
- 단, GLB법 시행 전에는 은행에 대한 비은행업 허가 업종이 제한적이었음에 주목할 필요: Gorener and Choi(2013)
- 한편 비은행업무로의 다변화가 위험을 키운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들도 있음: Boyd and Graham(1986), Demsetz and Strahan(1997), Roland(1997)

1. 해외문헌: 수익성 관점의 변천(2/2)

□ 1999년 GLB법 이후

- GLB법 제정 전후로 규제완화와 기술발전 등을 배경으로 비이자이익에 대한 많은 연구들, 이들의 일반적인 결론은 수수료 기반 금융활동이 은행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
 - * 미국은행들의 경우 자본시장업무로 업무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비이자이익 증가가 은행의 위험을 확대한다는 연구결과 다수: DeYoung and Roland(2001), Stiroh and Rumble(2006)
 - * 유럽은행에서도 1996-2002년 기간 중 비이자이익 업무 취급 은행의 위험이 대출전담 은행보다 크다는 연구결과: Lepetit, Nys, Rous and Tarazi(2008)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수수료업무(M&A금융, 대출창출 수수료, 브로커수수료 등)는 베타위험 확대: Gorener and Choi(2013)
-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무가 다변화되면서 수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반영 글로벌 은행산업 전체적으로 비이자이익 비중 하락: Gambacorta and van Rixtel(2013)
- 시스템리스크: 금융활동을 하나의 우산 아래 두는 것은 금융 안전성 저하: De Jonghe(2010)

2. 해외문헌: 지역은행

□ 독일(Köhler, 2013)

- 비이자이익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

- * 소매업 위주 은행(저축은행, 협동은행 및 기타소매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이 늘면 좀 더 안정적
- * 투자업 위주 은행: 수익의 많은 부분이 이미 비이자이익 형태로 발생하여, 동 비중 늘이면 위험 증가

□ 미국(Stiroh, 2006)

- 다변화 이득이 발생치 않는 이유는 경험과 비교우위 부재 때문

- * within 업무(신탁과 트레이딩, 부동산대출과 소비대출 등) 동종업종 다변화는 분산효과 창출
- * between 업무(은행의 전통적 예대업무와 비전통적 시장업무) 이종업종 간에는 분산효과 없음

2. 해외문헌: 금융복합그룹/금융지주회사

□ 부정적 효과

- *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그룹 안에서 취급 시, 상관관계가 증가하면서 다변화 효과 감소: Flannery(2000), Santomero and Eckles(2000), Wilmarth(2001):
- * 그룹 내 또는 외부 신용평가사로부터 감시수준이 낮아져 그룹 전체위험 증가: Winton(1999), Wilmarth(2001)
- * 대마불사(TBTF)로 시스템리스크 확대: Santomero and Eckles(2000), De Nicolo and Kwast(2001), Wilmarth (2001):
- *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 주가수익률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따라서 시스템리스크 증가: De Nicolo and Kwast(2001)
- * 은행의 금융안전망이 비은행으로 확대: Herring(2002)
- * 증권자회사가 있는 지주산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 Ely and Robinson(2004)
- * 다변화 디스카운트: Laeven and Levine(2007), Schmit and Walter(2007)

□ 긍정적 효과

- * 관계대출에 긍정적 효과: Petersen and Rajan(1994)
- * 정보비대칭성 완화와 내부자본시장 활용: Williamson(1970), Gertner et al.(1994)
- * 운영의 효율성 제고: Chandler(1977)
- * 범위의 경제: Diamond(1991), Rajan(1992), Saunders and Walter(1994), Stein(2002)
- * 고객에게 낮은 수수료 혜택: Sufi(2004), Drucker and Puri(2005)

2. 해외문헌: 겸영은행(UB)

□ UB의 겸업화 성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

- 이해상충과 위험분산효과

- * 부정적: 증권업을 내부겸영하는 방식은 심각한 이해상충 초래: Kroszner and Rajan(1997)
- * 긍정적: 은행 업무영역 확장 후 큰 위험부담 없이 높은 수익률 달성: Cornett et. al(2002)

□ 후진국의 UB 도입

- UB와 기업성장 간 긍정적인 관계 가능성

- * 기업의 금융조달비용 인하 및 금융접근 용이: Gande et al.(1997); Drucker and Puri(2005)

-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이해상충 비용이 규모/범위의 경제 이득을 초과: Xie(2007)

- * 은행이 증권업까지 수행할 경우 UB의 규모/범위의 경제로 기업의 조달 어려움 완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결국 기업의 느린 성장에 압도당하게 됨
- * UB와 기업성장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 효과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나라, 특히 증권법, 회계기준, 주식시장의 정보효율성 등 제도가 잘 갖춰지지 못한 나라에서 크게 나타남

3. 국내문헌

연구자	대상	수익과 위험, 수익성	비고
박정희와 변현수(2010)	2000~2008 13개 국내은행	비이자영업 증가는 총영업수익률 변동성을 증대, 이는 비이자수익률 변동성이 이자수익률 변동성보다 크기 때문	이자/비이자이익 변동성
이수진(2013)	2001~2012 일반은행	국내은행 이익변동은 주로 이자이익 변동에서 기인, 국내은행 수 익성 악화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주로 기인	이자이익 변동성
이명철과 박주철(2010)	2004~2008 일반은행	ROA, ROE에서 이자 대 비이자 이익 간 유의적 차이 없음, 총자산과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 비율이 은행수익성에 (+) 영향	지주사계열은행과 기타 은행
백승호,백승엽, 차승연(2013)	2001~2010 시은/지은/특은	지방은행은 비이자수익 가중치가 적절하여 안정적 수익구조, 시은과 특은은 비이자수익 편중되어 은행 전체이익 변동성 높음	지은과 시은/특은
변현수와 황세희(2011)	1999~2006 일반은행	시장성수신비중 높을수록, 가계대출비중이 유의하게 높고. 기업대 출 비중은 낮으며, 순이자마진과 구조적 이익률이 낮음	시장성 수신
한상섭과 이병윤(2012)	국내은행	시장성수신 비중 상승은 동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면 경영안정성 에 (-) 효과, 이상이면 (+) 효과	시장성 수신
손석진과 김수진(2013)	2003~2011 국내은행	시장성수신 비중 상승 시 수익성 제고되나 위험성도 제고됨, 비이자수익 비중 상승할수록 수익성 상승하나 위험은 변동 없음	시장성 수신

III. 글로벌 은행산업: 동향과 분석

1. 해외 주요 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분석자료
2. 주요 금융기관 기초분석
3. 해외상업은행 분석

1. 해외 주요 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분석자료

- 출처
 - Bankscope by Bureau van Dijk
- 연도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연도 자료
- 금융기관
 - 금융기관 자료: 2013년도 총자산 기준 상위 1000개 금융기관
 - 상업은행 자료: 10개년 분석기간 중 매년 총자산 기준 상위 500개 상업은행(유니버설 뱅크 포함)
- 자료구성
 - 금융기관 자료: 주요 재무적 특성의 비교를 위한 자료 추출
 - 상업은행 자료: 재무적 특성비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계장부 부록상의 정보 등 추출

주: 분석 필요에 따라 모든 분석에서의 표본 수가 일치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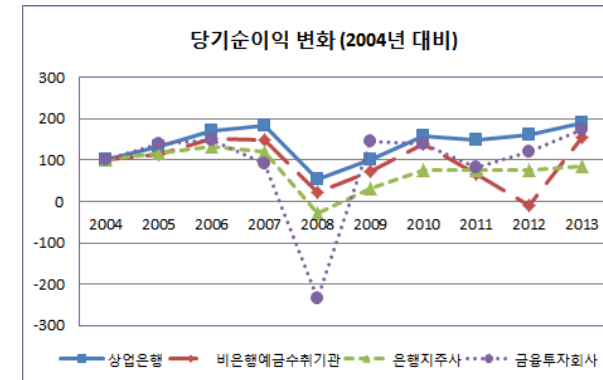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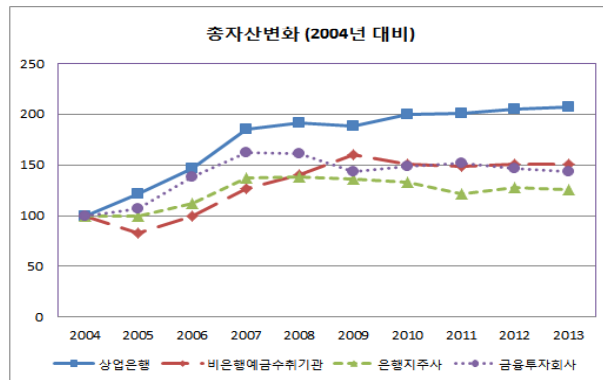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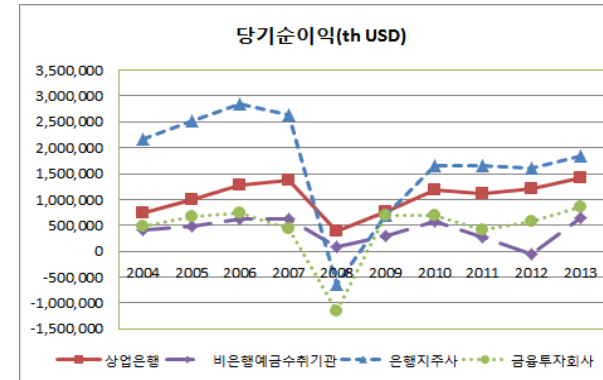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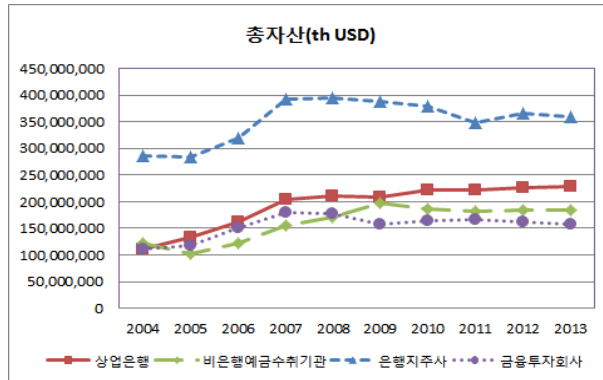
2. 주요 금융기관 기초분석: 자료의 분포

Specialization	국내기준 분류	계
Commercial banks	상업은행	441
Savings banks, Cooperative banks, Real Estate & Mortgage banks, Other non-banking credit institutions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138
Bank holdings and holding companies	은행지주회사	139
Investment banks, Securities firms	금융투자회사	82
Finance Companies	여신전문회사	43
Specialized government institutions, Central banks, Multi-lateral government banks	정부은행	132
합계		975

주: 상기분류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 재분류한 것임 (기타 그룹에 속한 25개의 금융기관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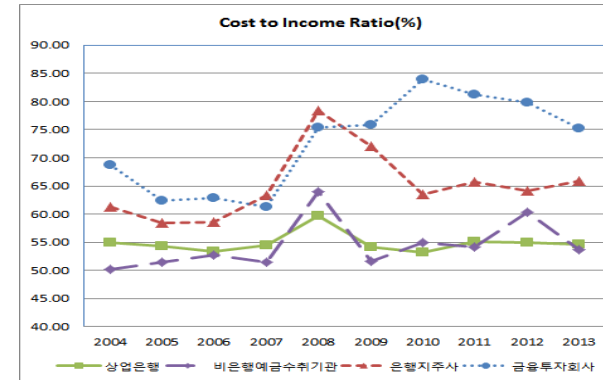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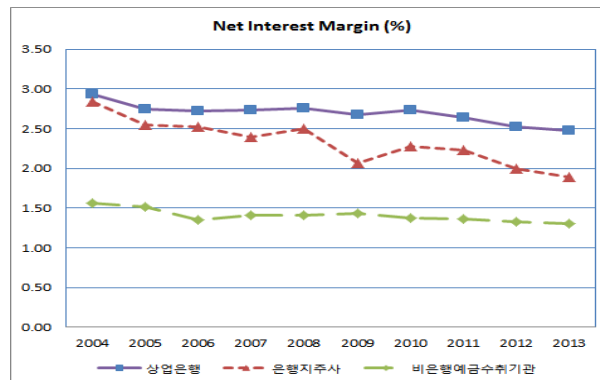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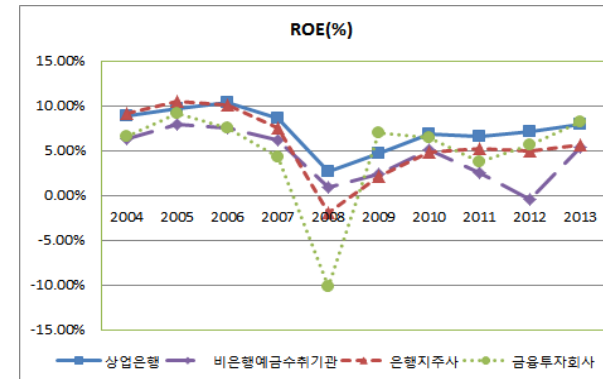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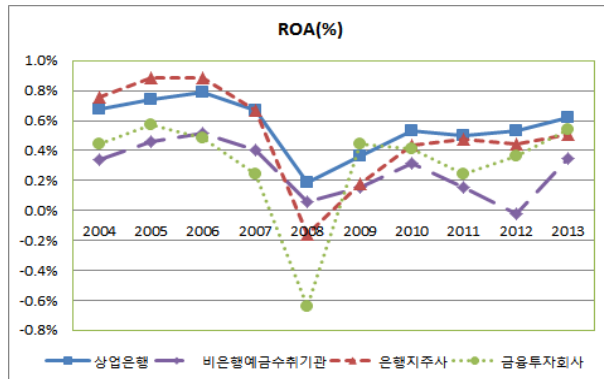
- 4개 주요 금융기관을 분석
 - 국내 금융기관 분류방식과의 일관성을 고려
 - 상업은행과의 유사성과 겸업화로 인한 수익성의 변화 관찰 목적
 - 상업은행,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등의 4개 그룹에 속한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2. 주요 금융기관 기초분석: 규모



- 총자산
 - 상업은행은 금융위기를 지나 매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04년 기준 2배 이상 수준
- 당기순이익
 - 금융위기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으나 '04년 대비 2배 수준까지 증가
 - 금융투자회사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

2. 주요 금융기관 기초분석: 수익성



- ROA와 ROE: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반영된 2개의 수익성 지표는 유사한 변화 추이가 관찰
- NIM: 예금수취기관의 주요 수익성인 순이자마진은 지속적으로 감소
- CIR: 비용효율성의 측면도 예금수취기관이 금융투자회사보다 우월한 측면 관찰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자료의 분포

World region	Commercial banks
Western Europe	137
Eastern Europe	18
North America	60
South and Central America	29
Middle East	25
Far East and Central Asia	206
Africa	12
Oceania	13
All	500

- 분석기간('04년도부터 '13년도까지) 동안에 매년 총자산기준 상위 500개 상업은행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매년 총자산의 규모변화에 따라 개별 연도의 분석에 사용된 상업은행의 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
- 분석대상의 일관성을 위해서 연도별 추출과정에서 1회 이상 추출된 총 808개 상업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10개 연도에 걸쳐 분석을 실시함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지표 (기존의 시각)

손익항목	해외	국내	핵심이익	구조적 이익	총이익	영업이익	ROE,ROA
대출이자수익	이자이익	이자이익	○	○	○	○	○
기타이자 수익			○	○	○	○	○
예금이자비용			○	○	○	○	○
기타이자비용			○	○	○	○	○
배당이익	비이자이익	비이자이익			○	○	○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이익					○	○	○
기타유가증권이익					○	○	○
유가증권 시가평가이익					○	○	○
보험이익					○	○	○
수수료이익			○	○	○	○	○
기타영업이익					○	○	○
기타영업비용					○	○	○
인건비(판관비)				○		○	○
대손비용						○	○
법인세							○
배당							○

주: 수익성지표는 국내기준으로 조정하였음

- 은행 수익성은 은행의 중개기능, 겸업화, 전략 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며, 지표선택은 은행산업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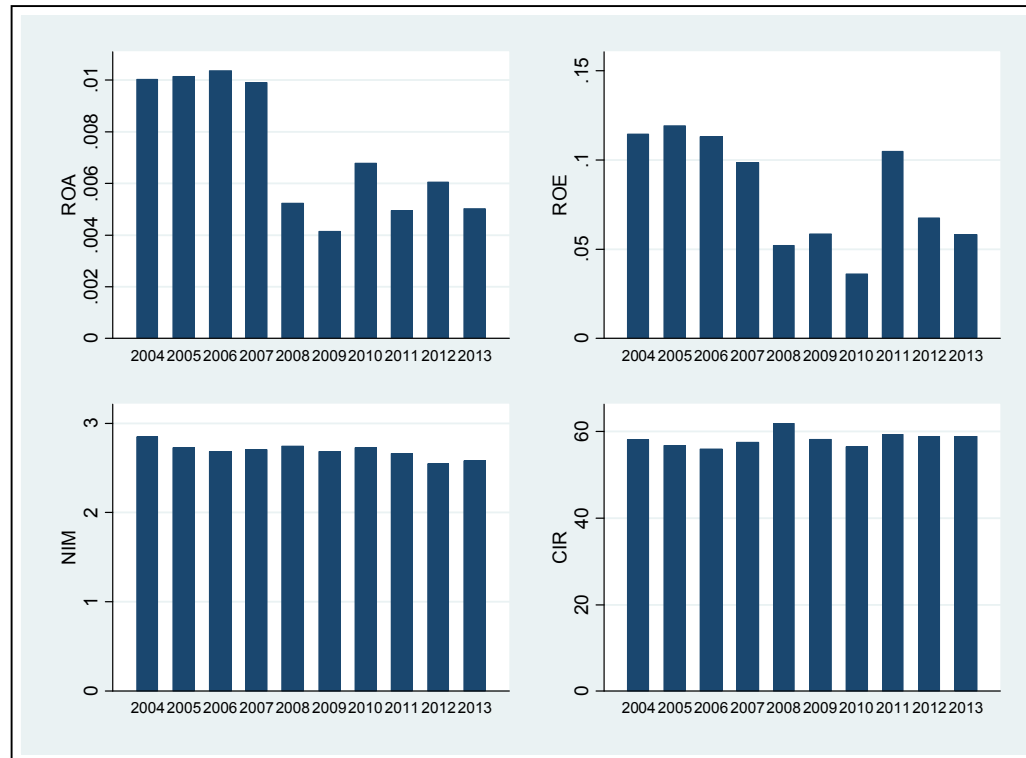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지표 (새로운 시각)

손익항목	해외	국내	예대이자이익	기타이자이익	핵심이익	구조적이익	총이익	전통적 중개이익	기타 중개이익	ROE, ROA
예대 ← → 기타										
대출이자수익	이자 이익	이자 이익	○		○	○	○	○		○
기타이자 수익				●	●	●	●		●	●
예금이자비용			○		○	○	○	○		○
기타이자비용				●	●	●	●		●	●
배당이익							●		●	●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이익	비이 자 이익	비이 자 이익					●		●	●
기타유가증권이익							●		●	●
유가증권 시가평가이익							●		●	●
보험이익							●		●	●
수수료이익					○	○	○	○		○
기타영업이익							●		●	●
기타영업비용							●		●	●
인건비(판관비)						●				●
대손비용								○		○
법인세										●
배당										●

주: 수익성지표는 국내기준으로 조정하였음

- 기존의 수익성 지표는 전통중개(예대)업무와 기타중개(기타)업무가 혼합
- 전통중개업무와 기타중개업무를 분리한 수익성 지표에 대한 이해와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고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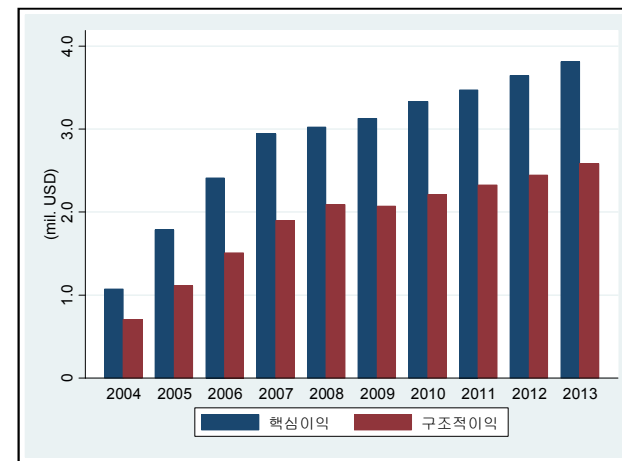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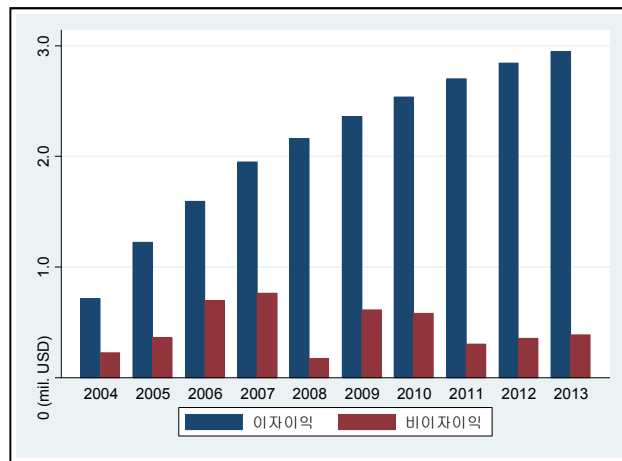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현황 ROA, ROE, NIM, CIR



- ROA와 ROE는 금융위기 이후에 급감한 후에 등락을 거듭
- NIM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CIR은 일정한 수준 유지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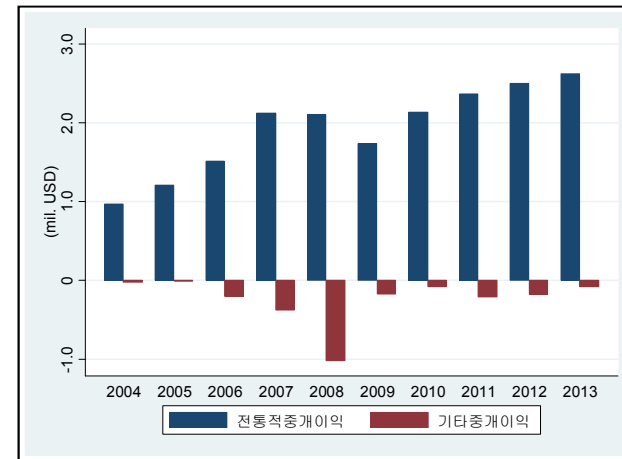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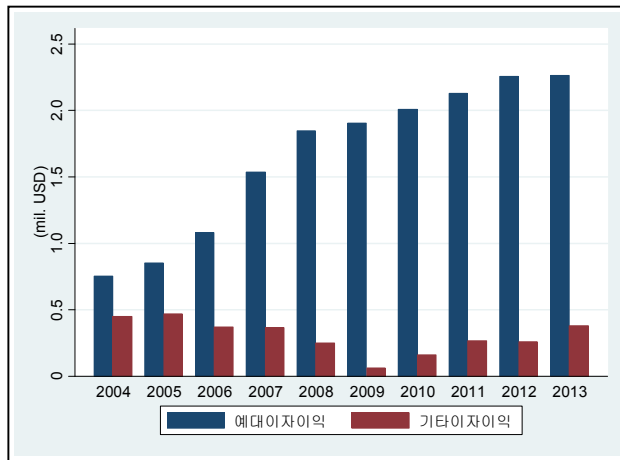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핵심이익, 구조적이익



- 이자이익, 핵심이익, 구조적 이익
 - 핵심이익=이자이익+수수료이익
 - 구조적이익=(이자이익+수수료이익)+인건비(판관비)
- 비이자이익
 - 수수료와 수수료제외 비이자이익으로 구분
- 비이자이익은 이자이익, 핵심이익 및 구조적이익 등과 매우 다른 성격
 - 수수료 제외 비이자이익이 여타 이익과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변동성을 내재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현황

예대이자이익+기타이자이익, 전통적중개이익+기타중개이익



- 예대이자이익(대출이자수익-예금이자비용)과 기타이자이익(기타이자수익-기타이자비용)
 - 기타이자이익은 비예대업무로 발생하는 이자이익이며 금융위기 기간에 최저 수준
- 전통적중개이익과 기타중개이익
 - 전통적중개이익은 총이익에서 예대업무와 관련된 이익에 대손비를 반영한 수익성 지표
 - 기타중개이익은 총이익 중 전통적중개이익에 속하지 않는 비예대업무와 관련된 이익 고려
- 예대업무관련 수익성이 은행의 수익성의 주요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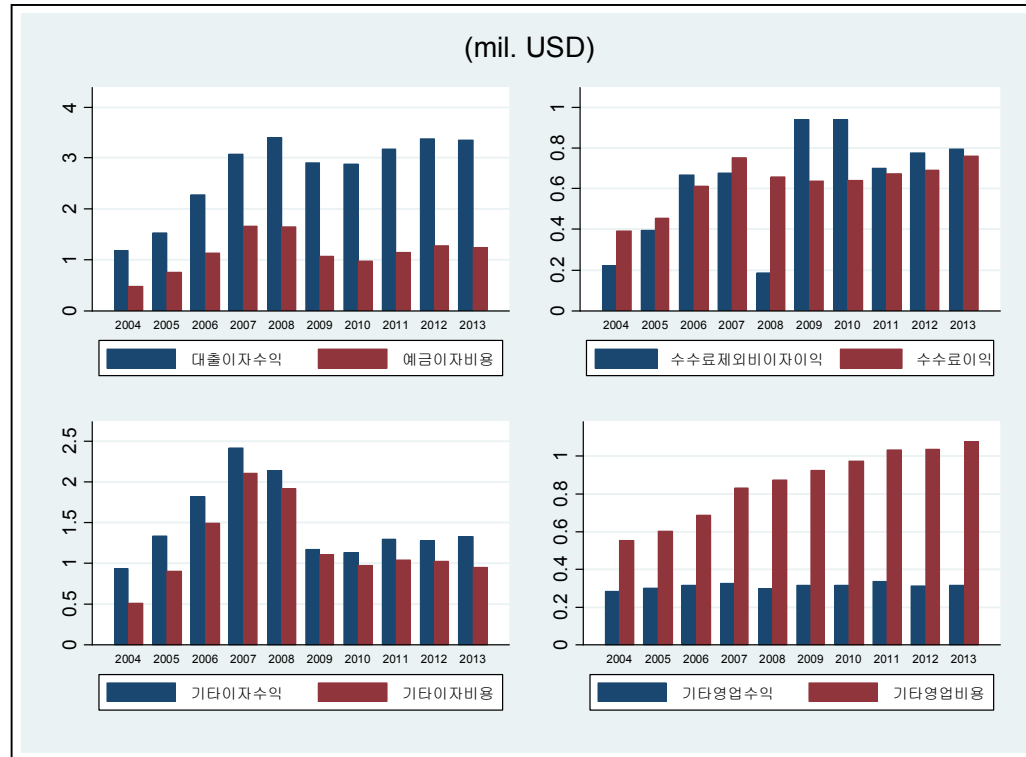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분해 이자이익 vs. 비이자이익

이자이익 =

(대출이자이익
-예금이자비용)

+

(기타이자수익
-기타이자비용)



비이자이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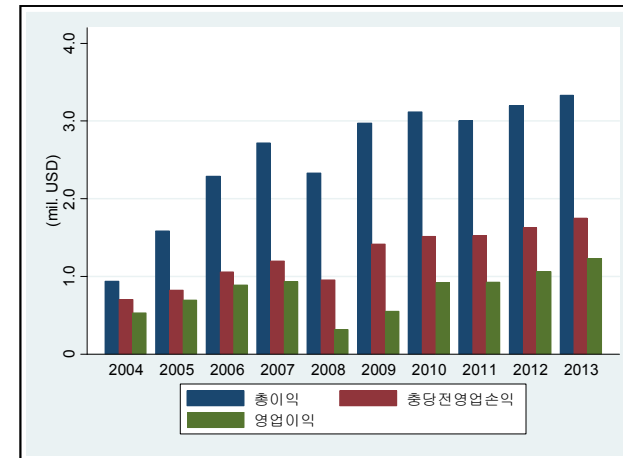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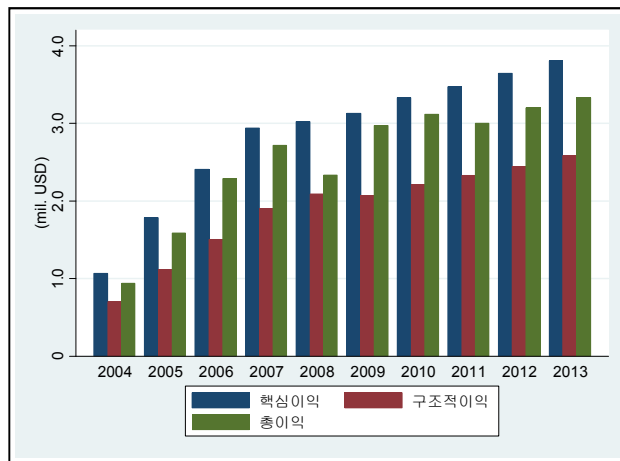
(수수료이익
+
수수료제외 비이자이익)

+

(기타비이자수익
-기타비이자비용)

- 이자이익
 - 예대업무로 인한 이자이익이 기타업무로 인한 이자이익을 꾸준히 초과
- 비이자이익
 - 수수료제외 비이자이익(배당이익,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이익, 기타유가증권이익, 유가증권 시가평가이익, 보험료이익)의 급감과 기타비이자비용의 꾸준한 증가가 비이자이익의 감소 및 정체의 원인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분해 핵심이익, 구조적이익, 총이익



- 핵심이익, 구조적이익, 총이익
 - 핵심이익은 변화의 추세가 유사한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의 합으로 점진적 증가
 - 구조적이익은 판관비의 증가추세 약화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없음
 - 총이익은 비이자이익의 변동성이 영향을 미쳐 변동성 존재
- 총이익에서의 차감 항목
 - 총이익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총당전영업손익으로 볼 때 인건비 비중이 큼
 - 총당전영업손익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분해 수수료, 인건비와 수익성의 상관계수분석

상관관계분석	수수료이익	인건비	대손충당금	대출이자수익	예금이자비용
수수료이익	1				
인건비	0.8871*	1			
대손충당금	0.5269*	0.6051*	1		
대출이자수익	0.7551*	0.7771*	0.6710*	1	
예금이자비용	0.7330*	0.6530*	0.5037*	0.8674*	1

상관관계분석	수수료이익	인건비	대손충당금	기타이자수익	기타이자비용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수수료이익	1						
인건비	0.8871*	1					
대손충당금	0.5269*	0.6051*	1				
기타이자수익	0.6507*	0.6515*	0.3438*	1			
기타이자비용	0.5665*	0.5670*	0.3330*	0.8624*	1		
기타영업수익	0.2513*	0.5948*	0.4161*	0.3988*	0.2437*	1	
기타영업비용	0.7744*	0.9175*	0.6450*	0.6033*	0.4850*	0.6651*	1

- 수수료이익
 - 예대이자이익을 구성하는 대출이자수익과 예금이자비용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핵심이익과 전통적중개이익에 수수료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
- 대손충당금
 - 예대이자이익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대손을 고려하는 전통적중개이익의 우월성 증명
- 인건비
 -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고정비용의 성격을 내포
- 기타영업비용
 - 수수료이익, 인건비 및 대손충당금 모두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
 - 해외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기타영업비용이 주로 “설비 및 장치 비용”을 의미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결정요인 대출구조

상관관계분석결과	총대출/총자산	총가계대출/총자산	총기업대출/총자산	기업대출/가계대출
핵심이익/총자산	0.1985*			
구조적이익/총자산	0.2021*			
총이익/총자산	0.1556*			
NIM	0.1985*			
ROE				
ROA	-0.0690*	-0.1007*		
전통적중개이익/총자산	0.2356*	0.2773*	0.2824*	-0.2565*
기타중개이익/총자산	-0.2761*	-0.4500*	-0.3447*	

- 총대출율(=총대출/총자산)
 - 총대출율의 증가는 은행의 자산에서 예대업무의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수수료를 포함한 경우, 판관비를 제외한 경우, 비이자이익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수익성 증대가 가능
 - 비예대업무 만을 고려한 기타중개이익은 감소하고 있어 총대출율의 증가로 인한 예대업무의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을 것으로 예상
 - ROA는 부(-)의 상관관계는 대손충당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개연성을 의미
- 가계대출 vs. 기업대출
 - 총가계대출율과 ROA 간에 나타나는 부(-)의 상관관계는 가계대출의 대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
- ROE와 ROA
 - 기존 ROE는 대출의 구조와 무관하며 ROA는 대출의 구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음
- NIM
 - 총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 NIM에 정(+)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결정요인 자산구조

상관관계분석	총유가증권자산/총자산	총유가증권자산/총이자발생자산	총이자발생자산/총자산
핵심이익/총자산	-0.1916*	-0.1181*	-0.2764*
구조적이익/총자산	-0.1959*	-0.1453*	-0.1806*
총이익/총자산	-0.1537*	-0.0474*	-0.3395*
NIM	-0.2144*	-0.1723*	-0.3332*
ROE			
ROA		0.0707*	-0.1372*
전통적중개이익/총자산	-0.3350*	-0.2749*	-0.2375*
기타중개이익/총자산	0.3211*	0.3565*	-0.1475*

- 총유가증권자산, 총이자발생자산
 - 총자산대비 유가증권이나 (대출을 제외한) 이자발생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은행의 이익에 부정적
 - 전통적중개이익도 이러한 측면을 정확하게 반영하나, 기타중개이익은 증가
- 전통적중개이익, 기타중개이익
 - 유가증권자산의 상대적 증가는 비예대이익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 이외의 이자발생자산의 증가는 비예대이익에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
- 총이자발생자산
 - 대출을 제외한 전체 이자발생자산의 증가가 모든 수익성 지표에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지나친 비예대업무의 위험성을 시사

3. 해외 상업은행 분석: 수익성 결정요인 조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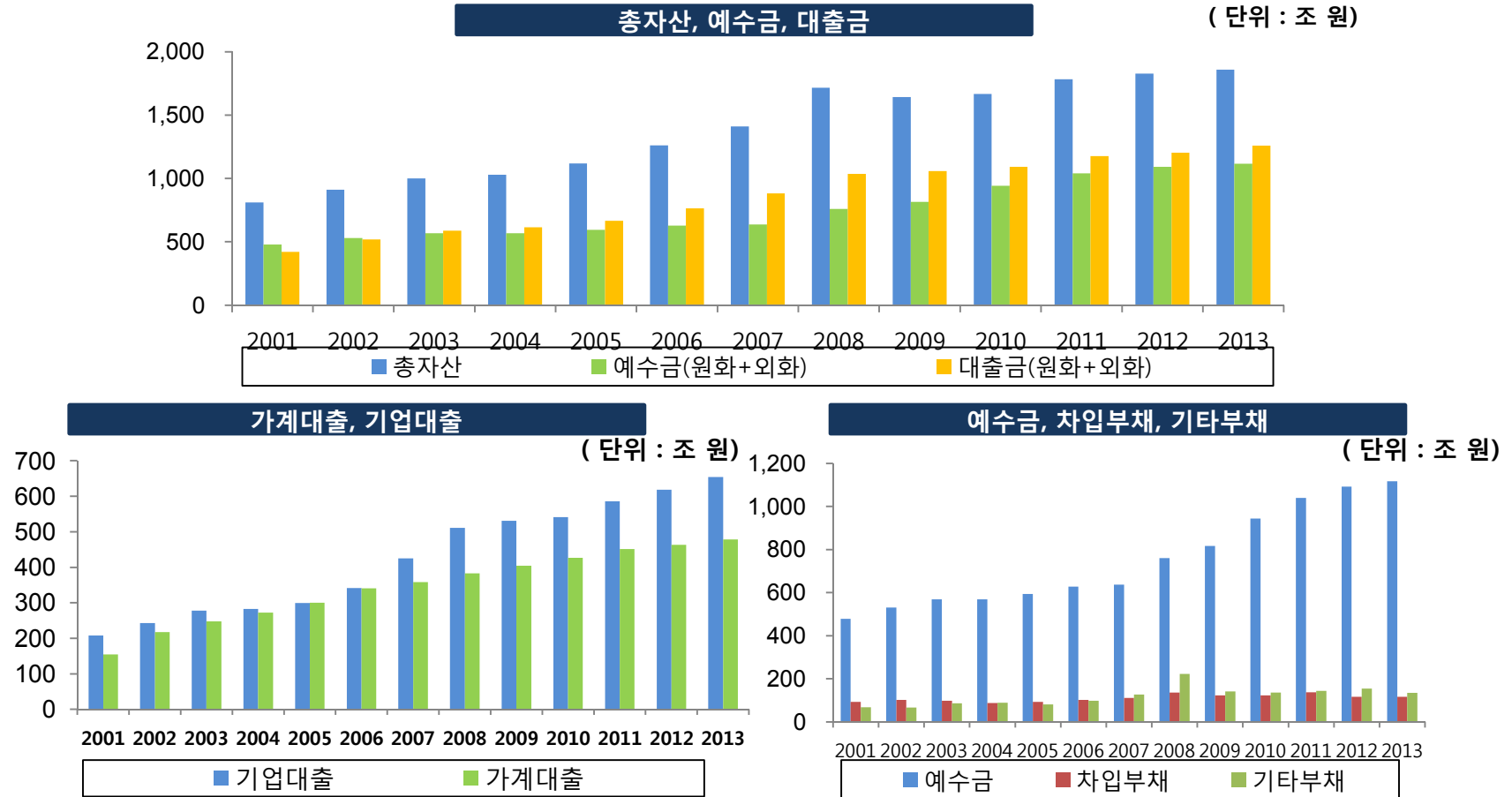
상관관계분석	단기조달자금/총자산	장기조달자금/총자산	고객예금/총조달자금	장기조달/총조달자금
핵심이익/총자산		-0.1235*	0.1780*	-0.1152*
구조적이익/총자산		-0.0898*	0.0875*	
총이익/총자산		-0.1400*	0.2347*	-0.1652*
NIM	-0.0681*	-0.0930*	0.3409*	-0.2084*
ROE				
ROA	-0.0487*	-0.0736*	0.1309*	-0.0826*
전통적중개이익/총자산	-0.2402*	0.1042*	0.1837*	
기타중개이익/총자산	0.1617*	-0.2488*		-0.2700*

- 고객예금의 비중
 - 고객예금을 통한 조달이 많아지는 경우에 대부분의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 예측
- ROA와 NIM
 - 고객예금의 비중 증가만이 ROA 및 NIM과 정(+)의 상관관계
- 단기조달자금 vs. 장기조달자금
 - 전통적중개이익률은 단기조달자금/총자산 과는 부(-)의 상관관계, 장기조달자금/총자산 및 고객예금/총조달자금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의 수익성 지표와 유사
 - 장기조달자금은 대부분 부(-)의 상관관계이나 전통적중개이익률과 기타중개이익률과는 정(+)의 관계를 보여 예대업무의 경우에 대부분의 자금조달이 장기자금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단기조달자금이 비예대업무의 수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단기자금이 대출보다는 비이자이자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IV. 국내 은행산업: 동향과 분석

1. 국내은행산업의 현황
2. 국내은행의 수익성 분해
3. 국내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분석
4. 수익활동에 따른 위험대비 수익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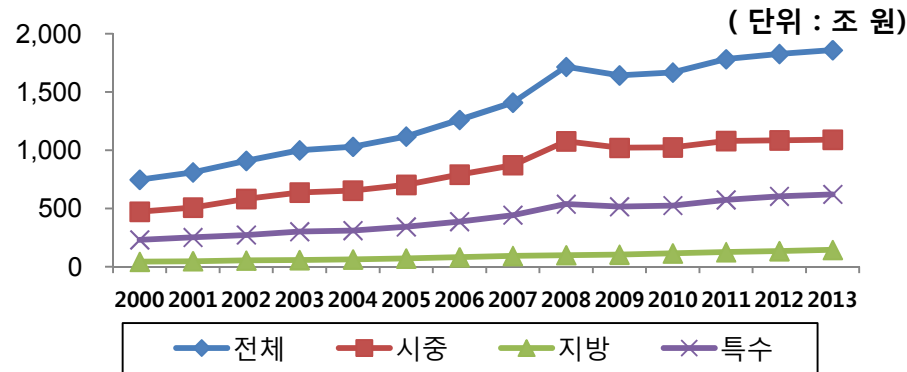
1. 국내은행산업의 현황 : 자산/대출/예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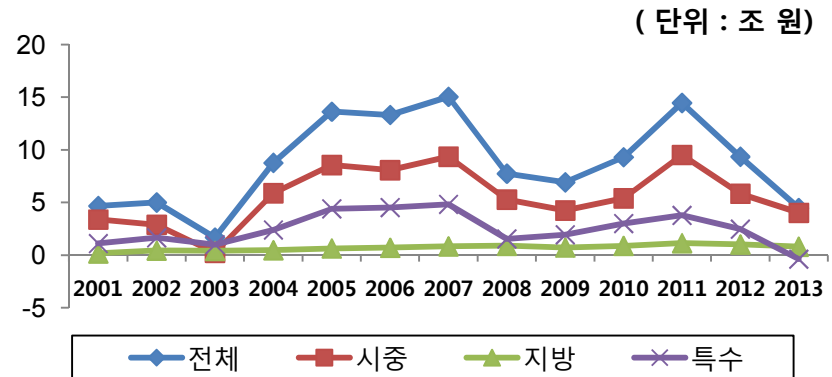
- 총자산/대출금규모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춤, 예수금규모는 꾸준히 증가

1. 국내은행산업의 현황 : 은행유형별 자산 및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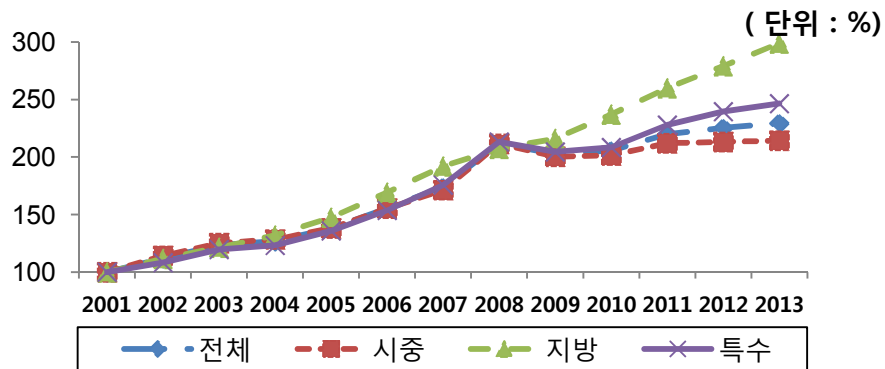
총자산변화(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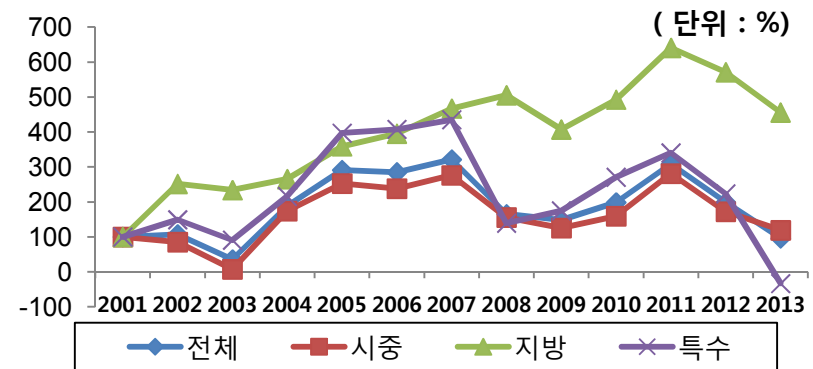
당기순이익 변화(금액기준)



총자산변화(2001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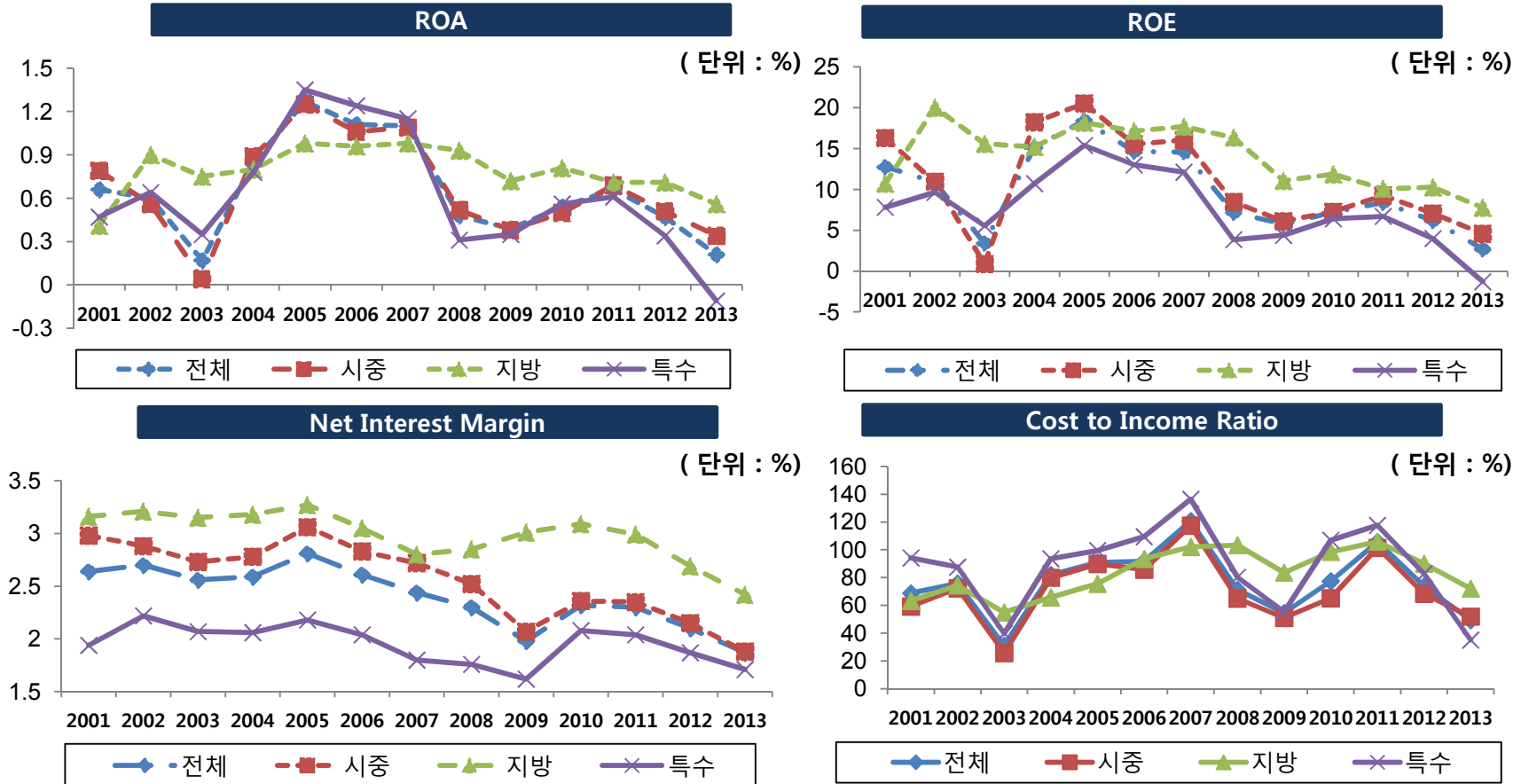


당기순이익 변화(2001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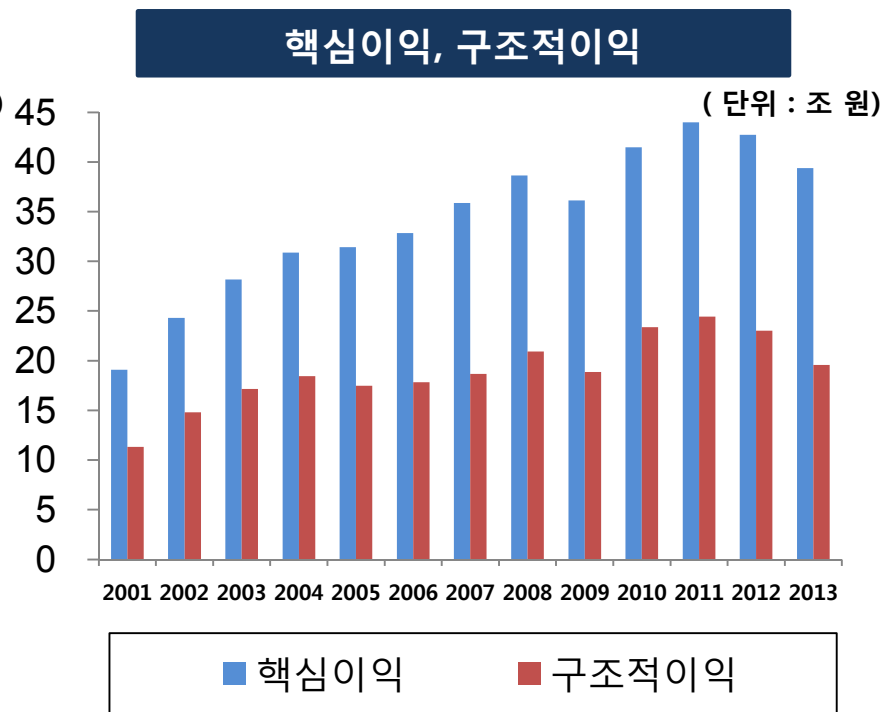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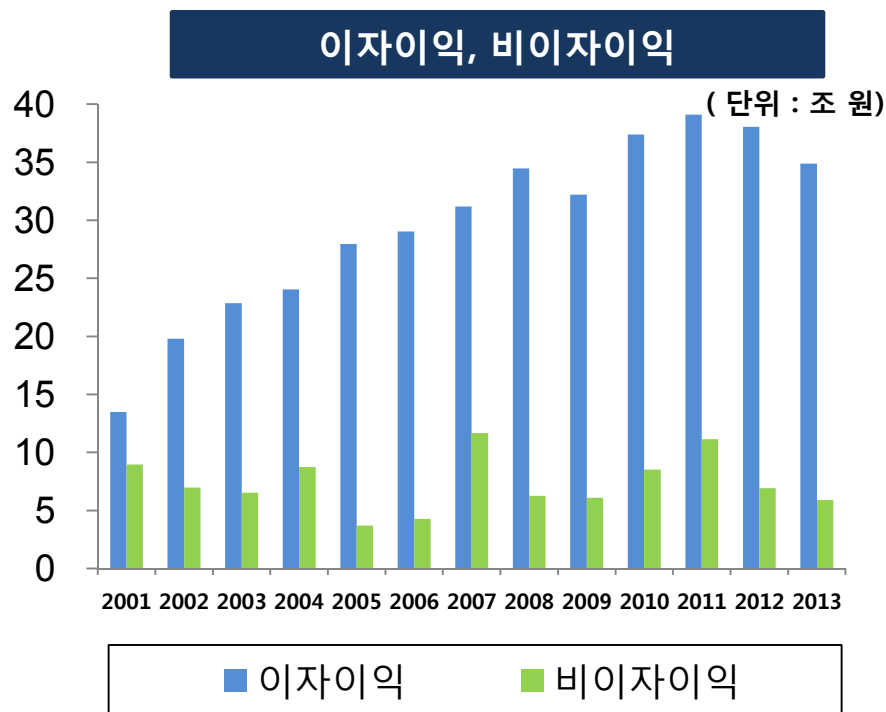
- 지방은행의 총자산규모증가는 여타 은행들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 유지
- 당기순이익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높게 나타난 후 최근 2001년 수준으로 하락

1. 국내은행산업의 현황 : 은행유형별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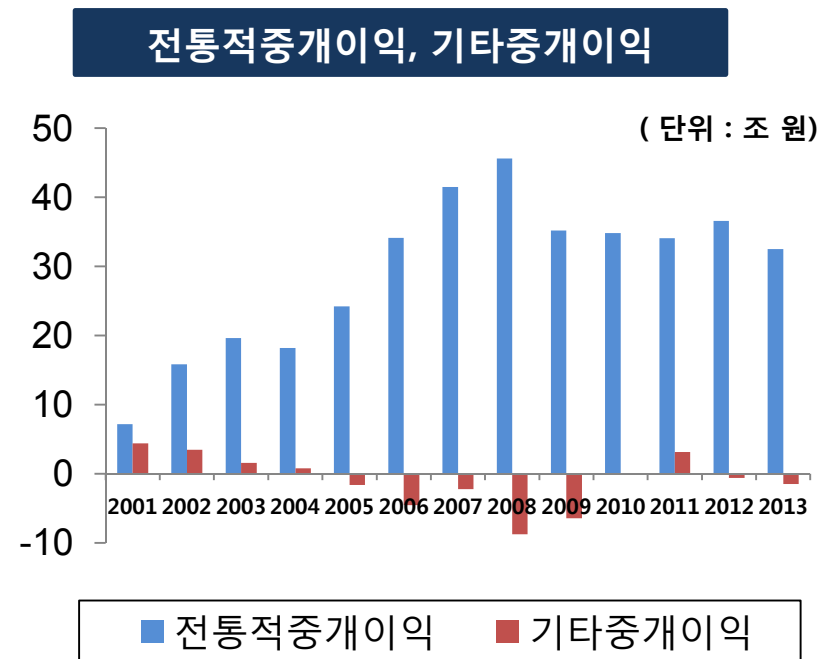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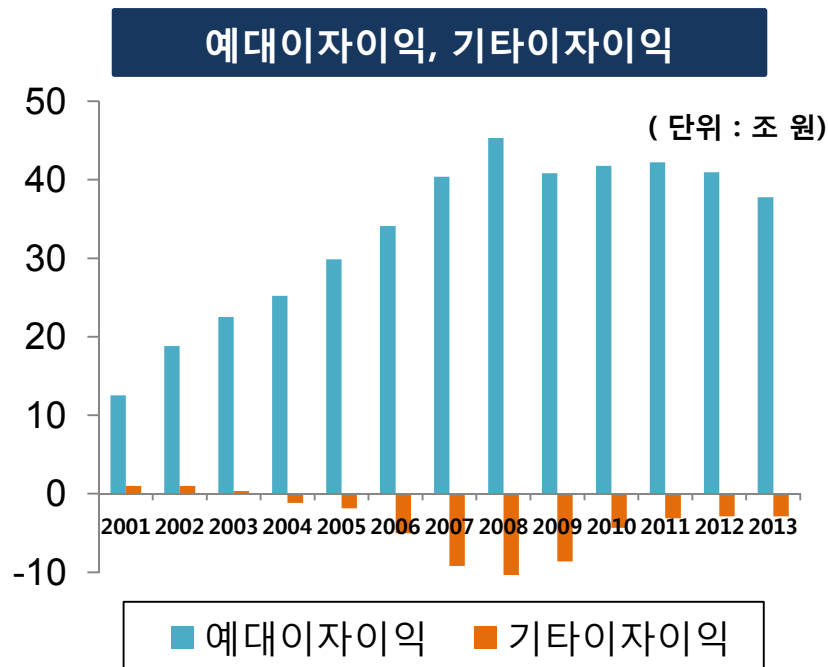
-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임
- NIM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
- 은행의 비용효율성을 나타내는 CIR 역시 여타 이익률지표들과 유사한 변화추이 나타냄

2. 국내은행의 수익성 분해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핵심이익, 구조적이익



- 이익의 정의
 - 이자이익 = 이자수익 - 이자비용, 비이자이익 = 비이자수익 - 비이자비용
 - 핵심이익 =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구조적이익 = 핵심이익 + 신탁이익 - 판관비
- 핵심이익과 구조적이익이 기존의 업계와 학계 그리고 감독당국의 시각에서 가장 본질적인 은행의 수익활동을 나타냄
 - 이자이익과 핵심이익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판관비를 감안한 구조적이익의 더딘 증가세, 그리고 비이자이익수준의 답보상태와 변동성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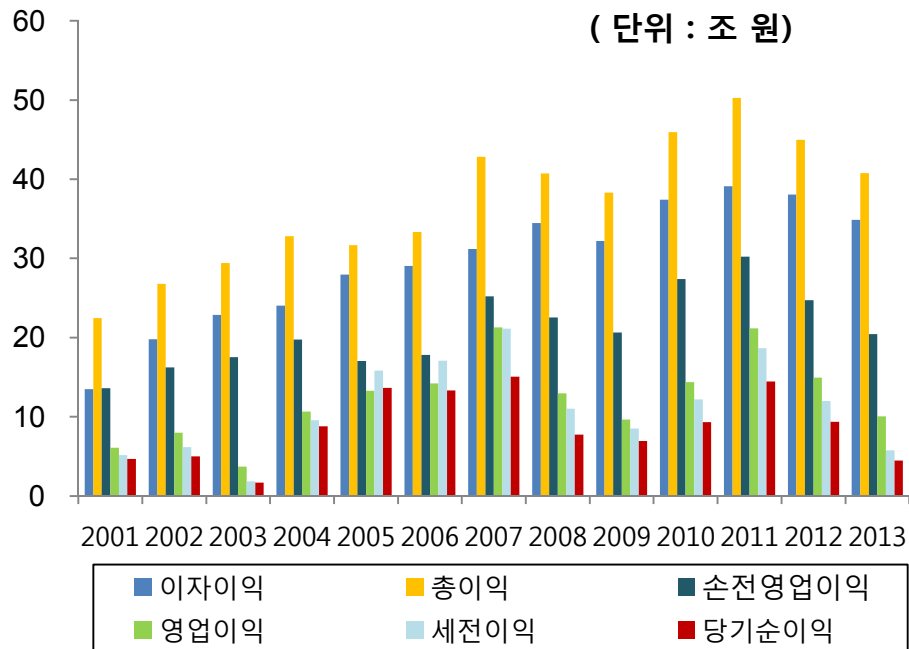
2. 국내은행의 수익성 분해 예대이자이익과 기타이자이익, 전통적중개이익과 기타중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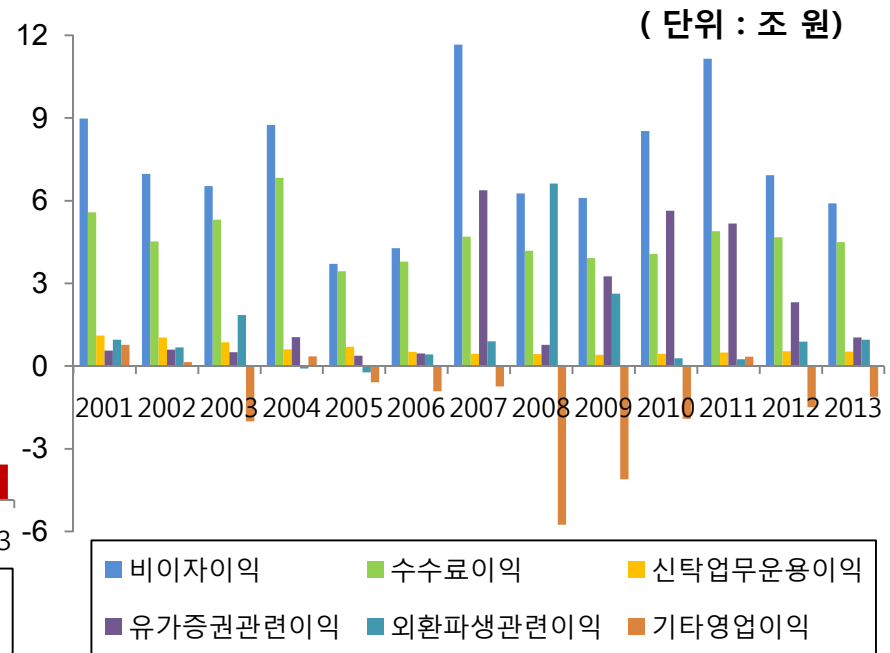
- 이자이익의 분해(이자이익 = 예대이자이익 + 기타이자이익)
 - 대출수익과 예수금비용의 차이로 정의된 예대이자이익규모는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 추세이고, 기타이자이익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큰 손실을 기록한 후 아직 회복하지 못함
- 전통적중개이익(=예대이자이익+수수료이익-대손충당금), 기타중개이익(=기타이자이익+수수료외비이자이익)
 - 전통적인 예대업무와 이와 수반된 수수료업무로 인한 전통적중개이익은 여타 이자이익 및 핵심이익과 비슷한 추이보임, 기타중개이익이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고 또한 부정적이었음

2. 국내은행의 수익성 분해 비이자이익 및 손익계산서상 제이익

손익계산서상 이익분해



비이자이익분해



- 비이자이익(=수수료이익+신탁이익+유가증권이익+외환파생이익+기타비이자이익)
 - 수수료이익은 비이자이익중 상당한 비중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 금융위기 이후 수수료를 제외한 비이자이익부문중 기타비이자이익(손실)의 규모와 변동성 증가
- 손익계산서상 제이익구성과 추이를 통해 각각 비이자이익, 영업외손익, 판관비, 대손충당금, 및 법인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총이익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판관비와 대손충당금의 영향으로 수익성제고에 상당한 걸림돌

2. 국내은행의 수익성 분해

국내은행들의 수익성과비교 (2011~2013년 평균기준)

순위	핵심이익률	구조적이익률	전통적 중개이익률	기타 중개이익률	ROA
1	특수1	특수1	특수1	시중7	지방3
2	시중1	특수2	시중1	시중6	시중6
3	지방1	시중1	지방3	시중3	지방2
4	지방2	지방3	지방2	시중5	시중2
5	지방3	지방4	지방1	지방6	지방6
6	지방4	지방1	지방6	지방2	특수1
7	지방5	지방2	시중2	지방5	지방1
8	지방6	시중4	지방5	지방3	지방4
9	시중2	시중2	지방4	지방1	시중1
10	시중3	시중3	시중4	지방4	시중7
11	특수2	지방5	시중3	시중2	지방5
12	시중4	지방6	시중5	시중1	시중4
13	시중5	시중6	특수2	시중4	시중3
14	시중6	시중5	시중6	특수2	시중5
15	시중7	시중7	시중7	특수1	특수2

- 수익성지표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성과평가에 차이가 있음
- 전통적중개이익률은 기존의 핵심이익률 및 구조적이익률과 매우 유사한 측정결과를 나타내지만, 비이자수익을 포함하는 기타중개이익률은 여타 수익성변수들간 성과차이가 두드러짐
- ROA(ROE)는 전통적중개활동과 기타중개활동으로 인한 성과가 혼합되어 나타남

3. 국내은행들의 수익성 결정요인분석

국내은행들의 수익성변수들간의 상관계수분석

상관관계분석	기타중개이익률	이자이익률	비이자이익률	총이익률	핵심이익률	구조적이익률	NIM	ROA
전통적중개이익률	-0.0116	0.1937*	0.3897*	0.4051*	0.2479*	0.3806*	-0.0639*	0.2794*
기타중개이익률		0.5295*	0.4449*	0.7422*	0.4851*	0.4312*	0.5101*	0.2023*
이자이익률			-0.0111*	0.7698*	0.9886*	0.8758*	0.6109*	0.1568*
비이자이익률				0.5385*	-0.0613*	0.0936*	-0.0763*	0.2301*
총이익률					0.7913*	0.7915*	0.4727*	0.2802*
핵심이익률						0.8983*	0.5828*	0.1785*
구조적이익률							0.4351*	0.2244*
ROA								0.1283*

- 전통적중개이익률과 기타중개이익률은 기존의 핵심이익률과 구조적이익률과는 조금 다른 행태
 - 전통적중개이익률은 기타중개이익률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NIM을 제외한 여타이익률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기존의 여타이익률과의 관련성은 기타중개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기타중개이익률은 여타이익률들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 보이며 전통적중개이익률보다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이자이익률은 기존의 핵심이익률 혹은 구조적이익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비이자이익률은 양자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핵심이익률과 구조적이익률간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는 기존의 여러 이익률변수들의 구분에 따른 분석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을 수 있음

3. 국내은행들의 수익성 결정요인분석 수익성변수들과 대출구조

상관관계분석	총대출/총자산	가계대출/총자산	기업대출/총자산	기업대출/가계대출	가계대출/총대출	기업대출/총대출
핵심이익률	0.3381*					
구조적이익률	0.3954*					
총이익률	0.3575*					
전통적중개이익률	0.2748*	0.0086	0.1109*	0.0253	-0.0879*	0.1076*
기타중개이익률	0.0389	0.4168*	-0.0226	-0.2379*	0.4846*	-0.4904*

- 총대출률(=총대출/총자산)
 - 국내은행의 경우 총대출율의 상승은 기타중개이익률을 제외하고 은행의 주요이익률의 상승을 수반함
- 대출구조와 전통적중개이익률
 - 기업대출비중의 상승이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가계대출의 증가는 비유의적이거나 부(-)의 영향을 미침
- 대출구조와 기타중개이익률
 - 전통적중개이익률과는 달리 기타중개이익률은 가계대출비중의 상승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기업대출비중과는 비유의적이거나 부(-)의 연관성 보임

3. 국내은행들의 수익성 결정요인분석 수익성변수들과 자산구성

상관관계분석	총대출/총자산	상품유가증권/총자산	투자유가증권/총자산	기타자산/총자산
핵심이익률	0.3381*	-0.3676*	-0.5535*	-0.0163
구조적이익률	0.3954*	-0.5049*	-0.6299*	-0.0427
총이익률	0.3575*	-0.3001*	-0.4527*	0.0268
전통적중개이익률	0.2748*	-0.2493*	-0.3813*	-0.1572*
기타중개이익률	0.0389	-0.0459	-0.1236*	0.1885*

- 전통적중개이익률과 자산구성
 - 대출채권을 제외한 트레이딩자산비중과 기타자산비중은 전통적중개이익률에 모두 부정적 영향미침
- 기타중개이익률과 자산구성
 - 단기로 보유하는 상품유가증권의 비중은 기타중개이익률에 유의적이지 않지만, 장기보유를 전제로 하는 투자유가증권은 기타중개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수수료를 제외한 비이자수익활동의 수익성제고역할 미비결과와 유사함
- 국내은행들의 비대출자산비중 상승에 따른 수익성개선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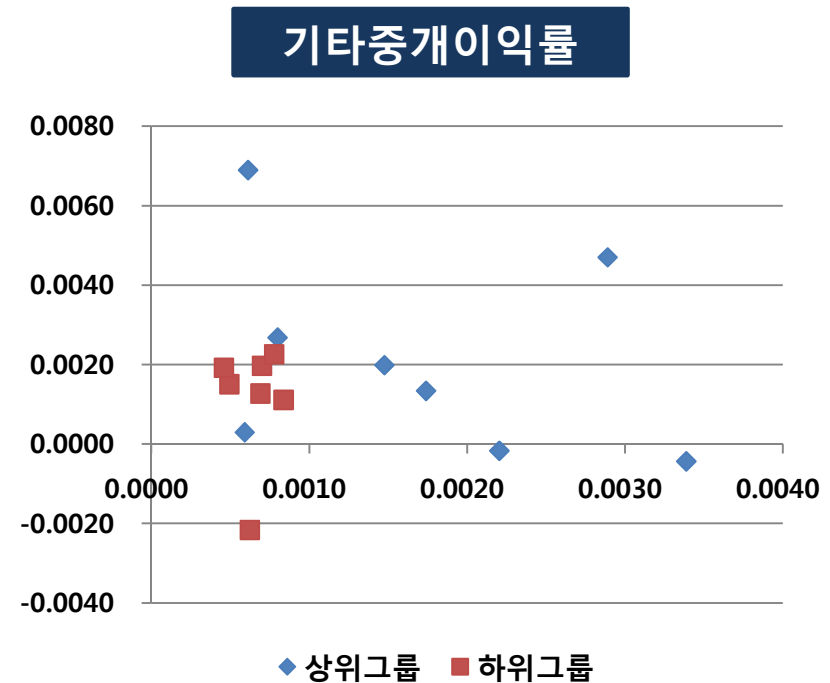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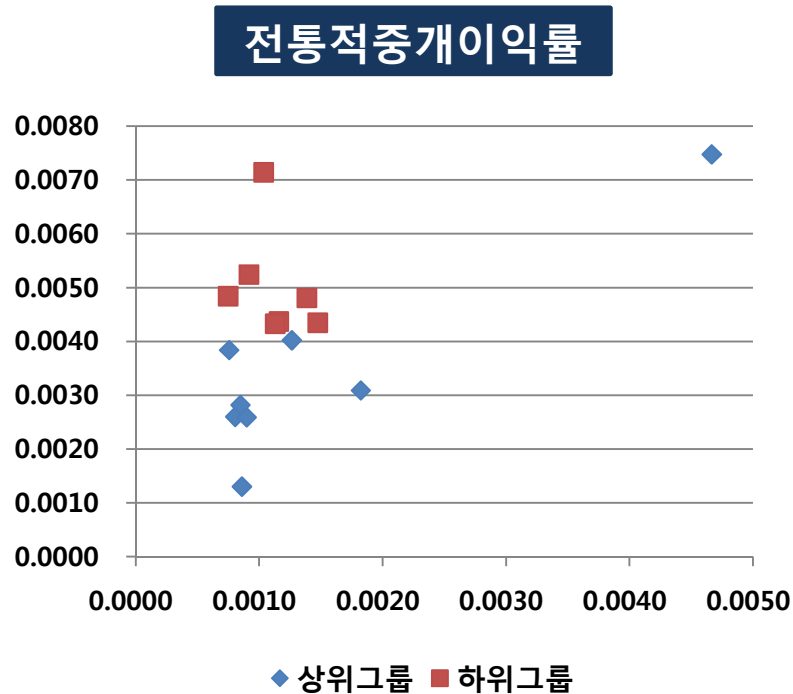
3. 국내은행들의 수익성 결정요인분석 수익성변수들과 조달원천

상관관계분석	예수금/총자산	차입금/총자산	사채/총자산
핵심이익률	0.3349*	-0.3448*	-0.2030*
구조적이익률	0.1109*	-0.3039*	-0.0317
총이익률	0.2160*	-0.2657*	-0.082*
전통적중개이익률	-0.2354*	-0.0676*	0.2513*
기타중개이익률	0.5209*	-0.2717*	-0.4009*

- 전통적중개이익률과 조달원천
 - 전통적중개이익률은 여타 이익률과는 달리 예금비중과 부(-), 시장성조달비중과 정(+)
의 상관관계 보임
- 기타중개이익률과 조달원천
 - 기타중개이익률은 저렴한 예금조달비중과 정(+)
의 관련성을 가지지만, 시장성조달비중에는 부(-)
의 영향을 받음
- 핵심이익률과 구조적이익률 그리고 총이익률 등은 기타중개이익률과 유사한 결과

4. 수익활동에 따른 위험대비 수익성분석

비이자수익비중에 따라 구분한 위험대비 수익성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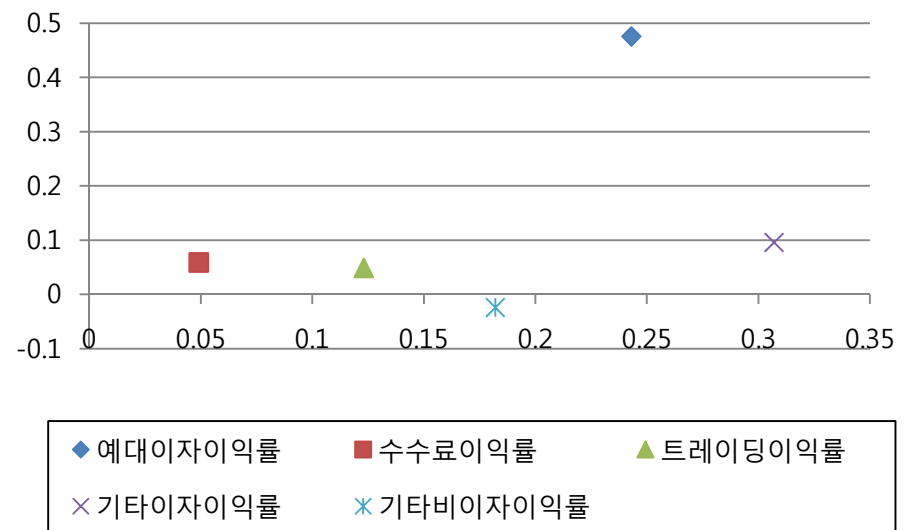
- 은행의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비이자수익/총수익) 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활동수준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전체은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익률의 평균과 위험(표준편차)을 분석함
- 비이자수익활동수준에 따라 전통적중개이익률의 위험차이는 거의 없지만, 동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적중개이익률은 높게 나타남
- 비이자부문의 비중이 클수록 기타중개이익률 수준과 위험이 동시에 증가함

4. 수익활동에 따른 위험대비 수익성분석 원천별수익활동의 위험대비 수익성과분석

수익원천별 CoV역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CoV역수
예대이자이익률	0.476	0.243	1.959
수수료이익률	0.059	0.049	1.204
트레이딩이익률	0.049	0.123	0.398
기타이자이익률	0.096	0.307	0.313
기타비이자이익률	-0.024	0.182	-0.132

수익원천별 위험



- DeYoung and Roland(2001)의 CoV(coefficient of variation) 역수로 측정한 국내은행들의 이자 및 비이자활동들의 위험대비성과를 측정
 - 예대이자부문 > 수수료부문 > 트레이딩부문 > 기타이자부문 > 기타비이자부문 등의 순서로 위험대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중개활동에 치중할수록 위험대비성과가 높게 나타남

V. 경영전략의 모색

1. 분석결과의 요약
2. 해외 상업은행 전략 분석
3. 국내은행 전략방향 모색
4. 수수료이익 활성화

1. 분석결과의 요약

□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수익성 비교

	전통적중개이익	기타중개이익
이자이익	예대이자이익	기타이자이익 ¹⁾
비이자이익	수수료이익	트레이딩이익 기타비이자이익 ²⁾
대비	해외은행 대비 OK	해외은행 대비 열악

주: 1) 기타이자이익은 2004년 이후 매년 손실

2) 기타비이자이익은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손실

연구가설 검증결과: 국내외 은행 분석결과 비교

구분	가설	해외	국내
가설 1	중개기능가설: 은행의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정(+)의 관계	+	+
가설 2	(대출/총자산)의 증가와 전통적중개이익은 정(+)의 관계	총 대출: +	총 대출: +
		가계대출: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기업대출: +
가설 3	(예금/총자산) 규모와 전통적중개이익은 정(+)의 관계	고객예금: ?	예 금: -
		장기조달: +	시장성부채: +
		예금/총부채: +	
가설 4	[전통적중개이익]과 [기타중개이익] 간에 영(0)의 관계	부(-)	? 위기시는 부(-)
가설 5	CoV역수[전통적중개이익] > CoV역수[기타중개이익]	YES (>)	YES (>)
가설 6	(기업대출/가계대출)과 [전통적중개 이익] 간 정(+)의 관계	부(-)	정(+)

주: ?는 '비유의'를 표시

2. 해외 상업은행 전략 분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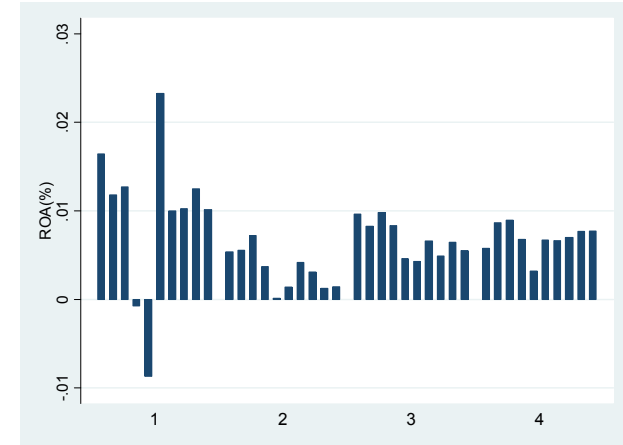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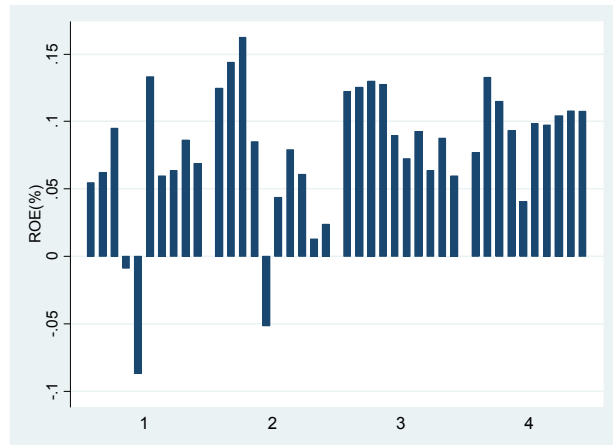
□ 표본의 선정

그룹	은행명
1. 투자은행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2. 투자은행지향 유니버설 बैं킹	Bank of New York Mellon, Barclays, BNP Paribas, Crédit Agricole, Credit Suisse, Deutsche Bank, Royal Bank of Scotland, Société Générale, State Street and UBS
3. 상업은행지향 유니버설 बैं킹	Bank of America, Banque Populaire CdE, BBVA, Citigroup, HSBC, ING Bank, JPMorgan Chase, Nordea, Santander and Unicredit Group
4. 상업은행	Bank of China, Mitsubishi UFJ FG, Mizuho FG, Standard Chartered,, Sumitomo Mitsui FG and Wells Fargo

주: Gambarcota and Rixtel(BIS, 2013)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 26개 은행의 동일 10개 연도의 자료로 표본을 국한하여 유사한 연구 진행

사례분석: 수익성(기존의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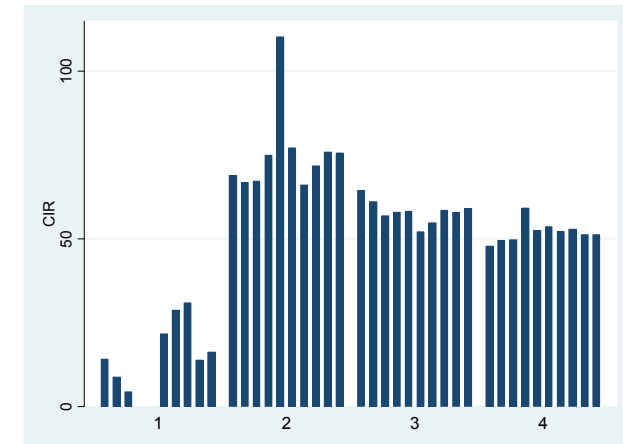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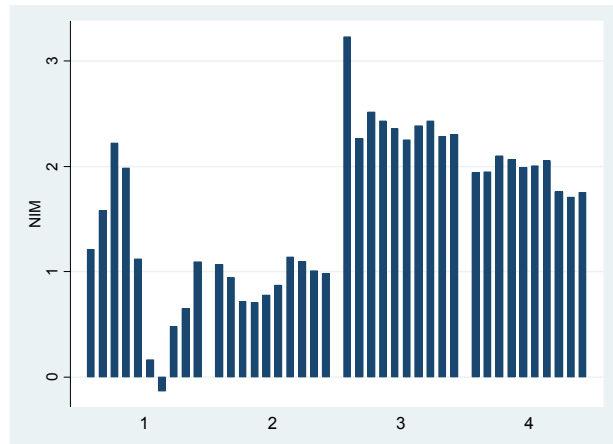
그룹별 10개연도 비교

ROE

R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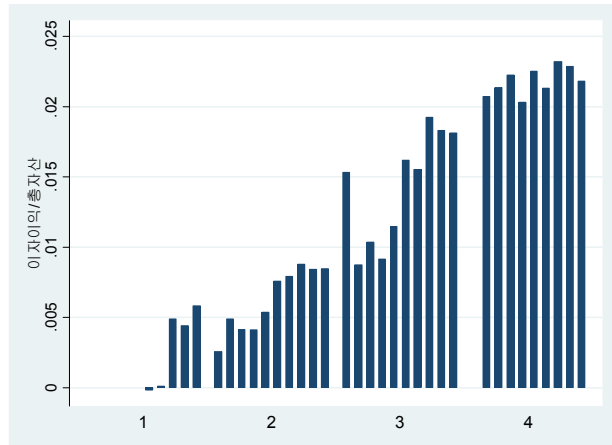
NIM

CIR



- 수익성의 안정성과 성장추세 모두에서 상업은행(4)이 우세
- NIM은 상업은행지향-유니버설뱅크(3)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자수익 창출 우세를 드러냄
- CIR은 상업은행(4)이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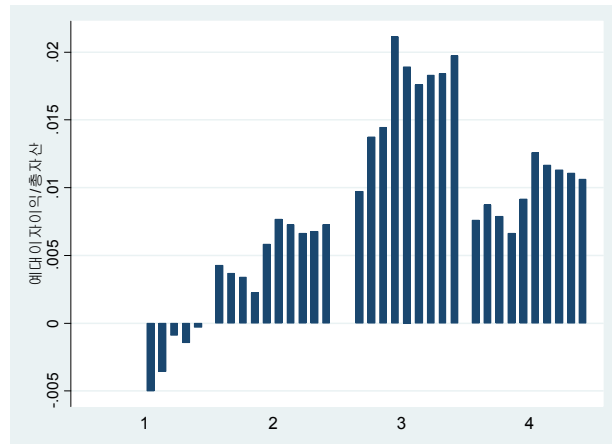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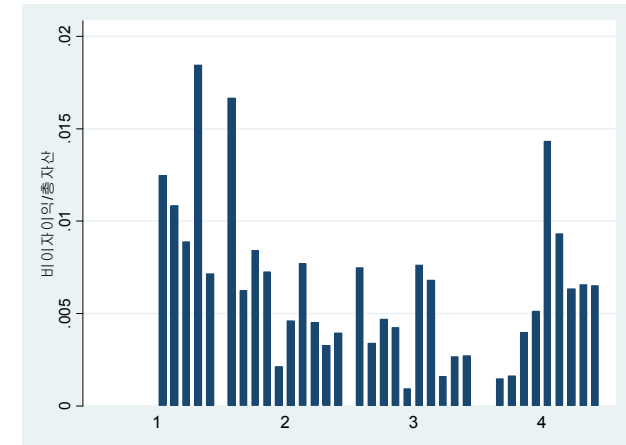
사례분석: 이익의 특성



그룹별 10개연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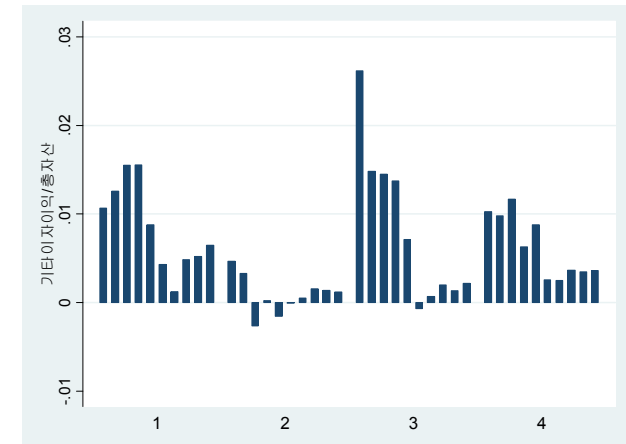
이자이익/총자산

비이자이익/총자산



예대이자이익/총자산

기타이자이익/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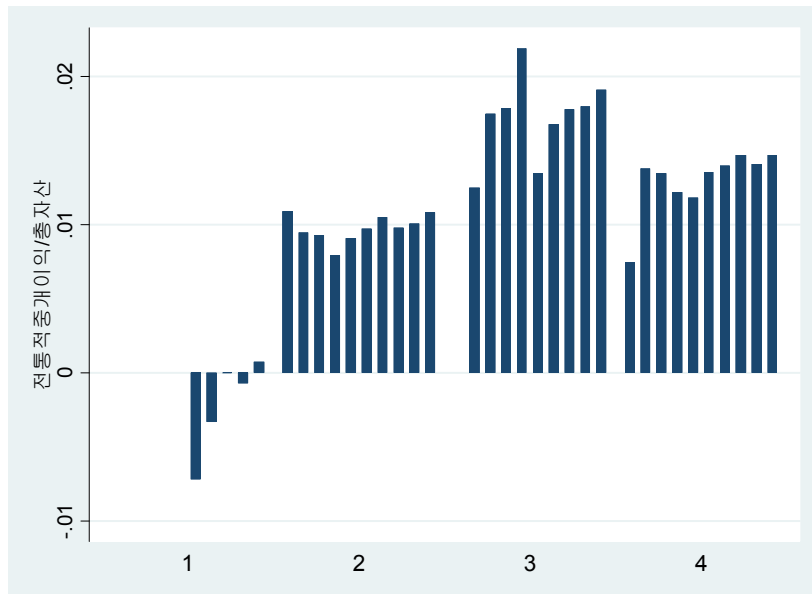


- 상업은행은 이자이익 창출력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비이자이익 창출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
- 상업은행지향-유니버설 은행이 예대이자이익 면에서 우수; 대출 심사와 예금 조달이 우수
- 상업은행지향-유니버설 은행의 기타이자이익 창출력이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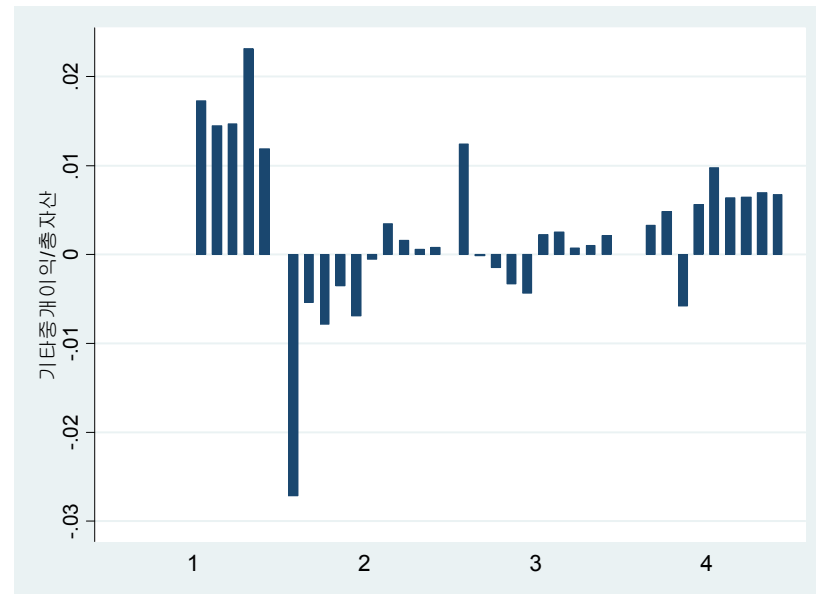
사례분석: 수익성(새로운 시각)

그룹별 10개연도 비교

전통적중개이익/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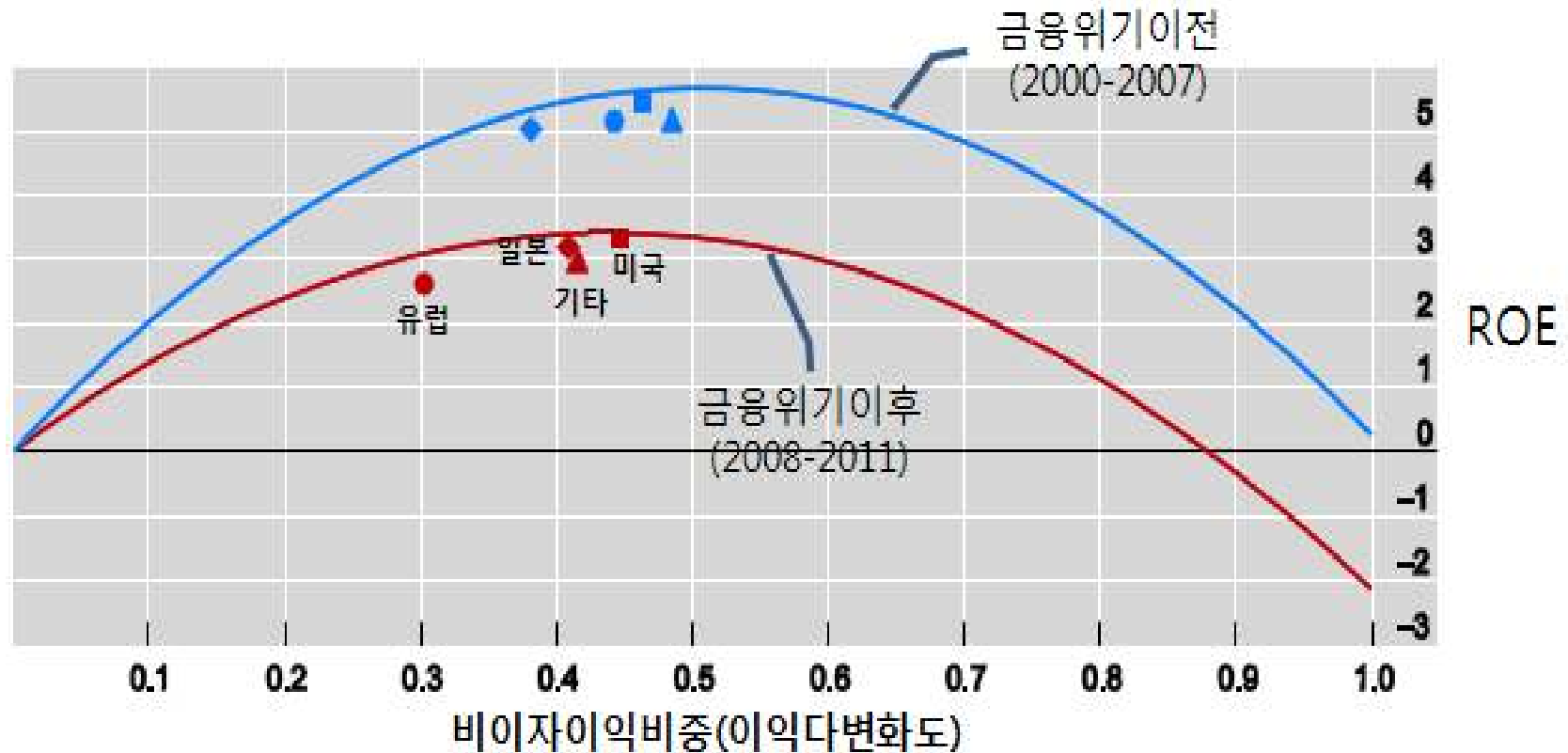
기타중개이익/총자산



- 전통적중개이익률은 상업은행지향-유니버설 은행이 상업은행보다 다소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상업은행의 예대업무 수행 상 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드러냄
- 기타중개이익률은 투자은행을 제외할 경우, 상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은행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
- 결론적으로 상업은행은 겸업화를 통해 예대업무를 강화하여 전통적중개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대와 달리 기타중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 상업은행 전략 (문헌 참조)

□ Gambacorta and van Rixtel(2013)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은행의 최적 비이자이익 비중 하락

3. 국내은행 전략방향 모색 (1/3)

해외

	평균	표준편차	CoV역수
예대이자이익률	0.0183	0.0176	1.04
기타이자이익률	0.0060	0.0167	0.359
수수료이익률	0.0067	0.0089	0.744
전통적중개이익률	0.0130	0.0174	0.747
기타중개이익률	-0.0007	0.0182	-0.038

국내

	평균	표준편차	CoV역수
예대이자이익률	0.0048	0.0024	1.959
기타이자이익률	0.0009	0.0031	0.313
수수료이익률	0.0006	0.0005	1.204
전통적중개이익률	0.0033	0.0049	0.671
기타중개이익률	0.0012	0.0036	0.320

<자료 설명>

- 해외은행자료중 비이자활동의 비용항목에는 인건비등 판관비가 각 비이자이익원천별로 구분되지 않아 국내자료와의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함
- 국내외 은행 모두 기타이자이익부문보다 예대이자이익부문에서, 그리고 기타중개이익부문에 비해 전통적중개이익부문에서 위험대비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

□ 전통적예대업무 수행능력 강화로 해외은행 대비 열위 극복 바람직

- 국내은행 기타중개이익률 지표는 규제완화 및 경쟁심화와 더불어 악화될 소지

3. 국내은행 전략방향 모색 (2/3)

□ 수수료이익 창출 위해 중개기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할 필요

전통적 예대업무	전통적 예대업무 유지	이자이익	
	수수료업무로 변환/신규창출	수수료이익	비이자이익
	기술발전으로 변환/신규창출		
	겸업화 이후 자본시장 업무로 이탈	기타 비이자이익 (트레이딩이익 포함)	
겸업화 이후 신규 허용된 업무			

⇒ 은행은 전통적 예대업무에 집중하면서 수수료업무를 통해 예대업무를 보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도모

⇒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양성과 기술투자 필요

3. 국내은행 전략방향 모색 (3/3)

□ 비이자이익 업무 활성화

구분	내용
수수료이익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이익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비이자이익 시각에서 전통적 중개기능의 진화된 형태로 새롭게 파악할 필요 -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전통적중개기능 업무를 예대이익과 수수료이익 업무로 전략적으로 구분 각각의 특성을 살려나가되, 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키 위한 전략 개발 필요
수수료 외 비이자이익 업무 (트레이딩, 신탁, 외환파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부분은 국내은행 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음 - 그러나 해외 은행들 대비 전체 비이자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국내은행 수익성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무리
기타 비이자이익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이자이익(손실)과 더불어 국내은행 수익성 하락의 중요 요인 - 이 부분의 개선과 원인규명이 급선무임

※ 판관비: 국내은행의 경우 수수료이익을 제외한 비이자이익들은 판관비와 음(-)의 관계,
 ⇒ 이는 인건비 등 감안시 수수료 제외 비이자활동의 수익성(효율성)이 부정적임을 시사

VI. 정책적 시사점

1. 겸업화 추진제도 재검토
2. 기타 정책 이슈

1. 겸업화 추진제도 재검토

□ 겸업화 추진의 대안

	현행 지주회사 제도 유지	겸영방식으로 전환	자회사방식 회귀
장점	제도변경 불필요 위험차단에 효과적	상호진출비용 저렴 겸업의 효과 강력	제도변경 불필요
단점	겸업의 효과 낮음	제도변경 필요 잠재적 이해상충	경쟁제한 그룹 내 중복 가능성

- 현 시점에서 제도변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행 지주회사제도 틀 안에서 은행의 수수료업무 개발 · 확대방안 검토

2. 기타 정책 이슈

- 낙하산 금지로 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
- 규제완화를 통한 은행의 전략/가격/상품 선택 폭 확대
-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퇴출규제 강화로 시장경쟁 활성화

VII. 결 론

- 국내은행 수익성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규제 속에서 은행의 중개기능 수행에 필요한 금융혁신 부재
 - * 오랜 관치금융에 취하여 적극적 위험부담 및 책임경영체제 운영에 소극적
 - * 금융환경 및 고객수요 변화 분석·연구 및 이를 토대로 수수료업무 등 개발 미흡
 - * 기타비이자이익업무 등도 부정적 영향
- 본 연구는 은행의 중개기능 수행을 [전통적중개이익=예대이자이익+수수료이익-대손충당금]으로 정의, 국내외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동 지표로 측정되는 은행 수익성이 은행의 중개기능 수행에 비례한다는 결과 도출
-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전통적 예대업무에 집중하여 예대이자이익을 높이고 수수료이익 업무 개발을 촉진하여 중개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수익성 확대의 지름길
 - * **결국 '기본에 충실하기(back to basics)'가 은행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책**
- 이를 토대로 은행의 경영전략과 수수료 이익 확충방안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감사합니다!